

금융기관 임원·건설업자 싸고 430억 불법대출

광주지검, 전 신협이사장·농협 임원 등 무더기 구속 부실 신협 문닫고 아파트 공사 중단 등 피해자 속출

광주와 전북지역의 일부 신협과 농협, 수협 임직원들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건설업자 등에게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줬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담보가치를 과다평가해 대출을 해준 탓에 해당 금융기관은 부실을 초래해 문을 닫은 곳이 있는가하면, 불법 대출로 건설업자가 구속되면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중단(광주일보 11월3일자 13면)돼 애꿎은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광주지검 부정부패특별수사팀(팀장 김희준 차장검사)은 하루로 대출 서류를 꾸며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광주 A신협 전 이사장 조모(66)씨와 임직원 2명, 전북 B농협 임원 문모(51)씨, C수협 전 지점장 신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임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황모(44)씨 등 3명도 구속 기소했으며, 또 다른 대출자 2명을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다.

조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담보물 가치를 과다평가해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3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보가치를 조사하지 않고 대출 금액에 맞춰 허위 기재했다가 대출 뒤 감정평가서, 시세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신협은 담보 가치가 1009만원임에도 2억2016만원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1억5300만원의 대출해줬다.

또 대출자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자가 내세운 명의상 차주를 형식적으로 평가하거나 대출 한도를 크게 늘려 차명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이들 임직원과 대출자는 명의상 차주, 차주 모집책, 담보물 알선책 등을 끌어들이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정상대출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 이후에도 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서류를 또 다시 거짓으로 꾸며 감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대출 장사'로 금융기관 임직원과 브로커 등은 5억5000만원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 명의상 차주와 모집·알선책들도 건당 100만~700만원을 받았다.

불법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황씨 등은 개인 재산의 출연 없이 아파트 5개를 신축하고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불법 대출이 이뤄진 A신협의 경우, 총자산이 362억원인데 황씨 등 4명

에게 총자산의 94%에 이르는 341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중 224억원(총자산의 65%)이 상환되지 않고 있다. A신협은 부실화로 지난 6월 다른 신협에 흡수·합병됐으며 미상환 대출금은 그대로 부실채권으로 남아 일반 예금자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농협의 불법 대출금은 59억원, C수협은 27억원, D농협은 7억3000만원에 이른다.

매년 중앙회 차원에서 정기 감사가 이뤄졌지만 불법 대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다.

김희준 부정부패특별수사팀장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건설업자가 결탁해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로 금융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상공인 등 서민 예금자들의 금융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여죄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광주서부경찰, 운영총책 구속...상습도박 20명 적발

판돈 50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형태의 도박사이트 2곳을 개설·운영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김모(37)씨 등 국내외 사무실 운영책과 회원 모집책 등 조직원 31명,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상습도박한 A(28)씨 등 2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박 사이트 2곳을 통해 1회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게 하고 승패를 맞추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계좌 48개를 분석,

판돈 규모를 5070억원으로 추정했다.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된 보험회사 직원 A씨는 무려 1392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의 현금을 걸었고, 서울지역 명문대생 B(26)씨도 무려 279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일당은 미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 서울 송파·강동구 등 국내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모집책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회원들에게만 도박사이트 접근을 허용하거나 대포통장, 가상계좌를 통해 판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박씨 일당은 그러나 스포츠 경기와 온라인 게임을 중계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도박 사이트 홍보에 열을 올리다가 이를 눈여겨본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덩미를 잡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가출청소년 위협 2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7일 10대 가출 청소년을 우산 등으로 때리고 차량으로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B군(16)을 우산, 손,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2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88%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B군을 향해 5차례에 걸쳐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B군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한 실업계 고교를 지휘한 B군은 최근 가출해 지인 집에서 머물면서 A씨를 알게 됐고 이날 밤 술자리에서 '말버릇이 없다'며 A씨가 B군을 따로 불러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경미하지만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승기)을 몰고 협박한 점,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가로수를 보호하라 광주시 북구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7일 겨울철 가로수 피해를 막기 위해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 화로 일대 화단에 벚짐으로 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불법조업 중국어선 이틀새 11척 적발

해경이 지난 주말과 휴일사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1척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7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경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65km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중국국적 쌍타망어선 요어어15319호(188t, 승선원 14명) 등 6척을 붙잡았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우리측 EEZ경계선을 통과할 경우 실제위치와 통과 예정위치를 5.5km 이내로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지만 218km이상 허위 통보한 것으로 드러

났다. 또 우리측 해역에서 고등어 등 75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않는 등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앞서 지난 5일에도 신안군 가거도 서방 33km 인근에서 조업중인 중국국적 쌍타망 어선 요어어25097호(185t, 승선원 18명) 등 5척을 붙잡았다. 적발된 중국어선들은 고등어 등 잡어 3000kg을 포획하

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어업허가 필수서류인 어장용적도를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해경 기동전단에 나포된 후 담보금 1억8400만원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한편 해경 기동전단은 지난 10월14일부터 이날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81척을 적발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원정도박 혐의' 오승환 선수도 조만간 조사

동남아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가 프루야구 선수 임창용(39)에 이어 오승환(33)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은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출신의 도박장 운영업자 이모(39·구속기소)씨에게서 오승환이 동남아 지역 카지노에서 역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임창용(39)을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오승환은 일본 한신 타이거즈와 계약이 끝나고 FA(자유계약선수)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고자 미국에 머물고 있다. 오승환의 에이전트도 미국으로 건너갔다. 검찰은 오승환을 조사하고 나서 두 선수의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수색 중 잠수사 사망

"동료 잠수사 책임없다" 판결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단독 한중환 판사는 7일 지난해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민간 잠수사 이모(53)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민간 잠수사 공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씨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을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할 근거 서류가 없고 따라서 다른 민간잠수사와 달리 민간 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가 별도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잠수사 명단이나 잠수 순서는 해경이 관리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출소 1년도 안돼...상가 돌며 또 절도행각 30대 '철창형'



○"올 봄 1년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감한 30대 남성이 채 1년이 가기 전에 또다시 상가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철창 신세.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소한 김모(30)씨는 지난달 6일 밤 광주시 서구 박모(여·52)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 50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한 최근까지 광주지역 상가를 돌며 17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

을 훔친 혐의.

○경찰은 야음을 틈타 미용실 등 상가만 골라 뒷문이나 유리창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과 범행 현장에 남은 지문 3점, 주변 CCTV 분석을 토대로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김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그는 "올 봄 출소 후 깨끗하게 살려고 막 먹었으나 유흥비는 커녕 생활비도 없어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버렸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무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의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